

●●● **곽용숙** 꼬꼬감별학원장

감별사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 필요



▲ **곽용숙**

1975~1991. 대한양계협회 근무
1988 병아리 감별사 자격증 취득
1996~1999 베트남 감별사 파견, 활동
1991부터 2003년까지 양계박람회, 축산박람회 병아리 감별과정 참가
현 꼬꼬감별학원 운영

감별사들은 지난 1966년 10월부터 한국초생추감별협회를 통해 배출되기 시작하였고 1973년 양계협회 통합이후 1993년 12월 감별사 시험을 끝으로 당시까지 총 1,043명의 감별사들이 공식적으로 배출된 바 있다.

본고는 20여년 동안 전국 부화장 등을 돌며 병아리와 메추리를 대상으로 감별활동을 왕성하게 벌이고 있는 곽용숙 사장을 만나 감별업계의 현황 및 업계 발전방안을 들어보았다. 곽사장은 지난 1991년 제1회 한국양계박람회부터 최근 1993년 한국국제축산박람회에 7차례나 참여하여 참관객들에게 감별장면을 보여주었고, 어린이들에게 귀엽고 노란 병아리를 통해 즐거움은 물론 꿈과 희망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병아리가 좋아 감별사로

곽사장은 지난 1977년 대한양계협회 총무부에 입사하면서 양계업과 인연을 맺었다. 당시에는 대한양계협회 주관으로 1년에 2~3차례 감별사 시험을 치뤘지만 감별사들이 많이 배출되었고 감별활동도 왕성하게 이루어졌다. 당시 국내 양계산업의 성장은 부화산업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었고 이에 따라 감별사들의 수요가 많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감별사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기회도 많았는데, 한국출신의 감별사들은 능력이 우수해 외국에서 특별대우를 받을 정도였다고 한다.

곽사장이 감별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은 양계협회에 근무할 당시인데, 당시 협회에 근무하면서 감별사 자격증 시험감독을 할 기회가 많았고, 시험감독을 하기위해서는 본인이 우선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공부를 시작하여 1988년에 산란계 100%, 육계 98%의 높은 판정율을 보이며 고등감별사 자격증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였다. 이후 양계협회 검정소에서 부화되어 나오는 병아리는 곽사장의 몫이었다. 이후 병아리와 같이 있는 시간이 좋았고, 특히 감별사에 흥미를 느끼게 되면서 1991년 본격적으로 감별사활동을 시작하였다. 1996년부터 4년동안은 베트남과 국내를 오가며 감별활동을 한 바 있다.

감별시장 점점 줄어

육종업의 발달과 감별사들의 많은 배출로 인해 현재는 일거리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축산연구소 등 공공기관에서 꾸준히 감별업무를 맡고 있으며, 메추리 감별도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을 다니면서 한창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 9월 충청도 예산의 신흥부화장에서 만난 곽사장은 손끝을 스쳐가는 모든 병아리들이 소중한 만큼 자식과 같이 정성을 다해 감별에 임하고 있었다.

현재 국내에는 20여명 정도의 감별사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국내 감별추의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해외를 겨냥해 감별을 배우는 학원생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해외로 진출하는 한국인 감별사는 매년 10여명 정도인데, 주로 유럽으로 진출하고 있다. 그 동안 한국과 일본이 주무대였던 전 세계 감별시장이 중국의 감별사들의 두각으로 인하여 갈수록 폭이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학원에서 기초를 튼튼히 배워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 국내외적으

로 한국인 감별사의 위신을 높이는 일이라고 곽사장은 강조하였다.

감별, 농장 생산성 좌우

감별을 하면서 어려운 일은 감별이 주로 새벽부터 시작하여 밤샘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가정주부로서 가정에 소홀하게 되므로 다소 부담스러운 점이 있고, 특히, 더운 여름 메추리 감별을 주로 할 때는 병아리에 비해 몸집이 작고 검은 색을 띄어 작업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고 한다.

곽사장은 눈을 감고도 감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업계에서는 베테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년간의 노하우로 섬세한 손끝에서 처리되는 병아리는 100%의 감별율을 자랑할 정도이다. 곽사장은 보통 시간당 1,200수의 병아리를 감별하고 있으며, 메추리는 2,000수 정도 감별하고 있다. 간혹 실수로 1~2마리 정도 오류가 날 때도 있지만 오류율이 높아 질수록 농장에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어 최선을 다해 감별을 하고 있다.

농장에서도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지만 아직까지 감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쉽다. 아직도 낮은 가격에 감별을 요청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기 때문이다. 감별사의 능력에 따라 병아리 폐사율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감별이 농장의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감별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아무리 감별기계가 개발되더라도 감별은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곽사장은 감별사의 처우개선이 향상되길 바라면서 감별산업이 지속되는 한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갈 것을 약속하였다. (정리 | 기영훈 기자)



▲ 1993년 양계박람회 당시 허신행 농림부 장관에게 감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